

인천시, 식품산업 동향 공유하고 발전 방안 모색

인천시 위생정책, 비건 식품 개발, 푸드테크의 미래 등 공유

인천광역시시는 19일 중구 제이엔파크 호텔에서 인천시 식품산업 육성지원센터 주관으로 인천 식품산업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인천식품제조연합회 임직원과 업체 대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인천경서아

이푸드파크식품산업진흥사업협동조합 임직원, 협약기관 임직원을 비롯해 인천시, 군·구 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인천시 위생정책 방향 △2024년도 센터 주요업무추진계획 공유 △비건식품의 이해와 비건 식품 개발 △식품정책 방향과 푸드테크

의 미래 등으로, 민·관·협력기관이 함께 모여 식품산업 동향을 공유하는 등 네트워크 형성의 장이 마련됐다.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전국 최초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가 개소돼 이렇게 민·관이 함께 모여 식품산업 동향 및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 질수 있다는 것에 대해 식품관계인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공유하는 등 협업 방안

을 마련해 식품안전관리 및 식품산업이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최초로 인천에서 문을 연 인천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는 인천시 식품업체 약 6만5천개 소를 대상으로 국내·외 식품산업 판로 개척, 식품안전관리 맞춤형 교육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박형남 기자 / jonghapnews.com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천중 에코스마트팜 기반 마을리빙랩 거점 공간 마련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18일 청천중학교에서 에코스마트팜 ‘식품공작소’ 개소식을 열었다.

행사는 도성훈 교육감과 홍영표 국회의원의원, 인천광역시의회 박종혁 부의장, 나상길 시의원, 부평구의회 홍순욱 의장, 청천동 지역 관련 단체장,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청천중 에코스마트팜 ‘식품공작소’는 ‘마을과 연계한 나눔과 리빙랩(Living Lab) 실현’을 비전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태전환교육의 거점교로 구축했다.

에코스마트팜은 과학기술(IT)과 인공지능(AI)을 접목해 기후위기에 대응해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고, 좁은 공간에 수직으로 식물을 키워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제공

앞으로 청천중학교에서는 에코스마트팜을 운영하며 학생들은 인공지능을 접목한 첨단 농업기술을 경험하고 교육과정과 접목한 생태전환교육의 거점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공감연대실천을 통한 생태시민양성의 공간으로 운영될 예

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기후위기시대에 도시 내에 스마트 농업을 통해 먹거리를 자급자족하는 힘을 기르고, 미래 진로도 함께 갈 수 있을 때 인간과 자연과 인공지능(AI)이 함께 공존하는 미래사

회에 대응할 수 있다”며 “에코스마트팜이 미래먹거리 개척을 위한 진로 체험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거점 공간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 기자 / jonghapnews.com

인천 동구, 장애인체육회 창립총회 개최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지난 18일 장애인체육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10개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최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장애인 단체, 종합사회복지관장, 교수 등 자문위원과 장애인 체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임원들을 구성하고, 규약 및 직제규정,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동구장애인체육회는 이달 말까지 인천시 장애인체육회에 승인 절차를 밟아 2024년 1월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동구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과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지원사업, 장애인 동료인 지원하

며 장애인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향후 장애인생활체육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구는 그동안 3차례 장애인체육회 설립준비위원회 실무회의를 통해 규약 마련과 임원 선임 기준 및 사업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체육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 인천시와도 보조금 예산 지원도 논의했다. 동구장애인체육회 부회장으로 선임된 박종하 인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동구의 선도적인 첫 걸음을 축하하며, 장애인들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 개인을 찾아가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남부교육지



/동구 제공

원청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동구에서 인천 10개 군·구 최초로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할 수 있게 힘써 주신 창립 임원들에

게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동구는 통합의 첫 걸음을 통해 인천지역 장애인 체육 발전의 길을 먼저 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 기자 / jonghapnews.com

◆미추홀구

‘인천시 국정 시책 군·구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19일 ‘2023년 인천시 국정 시책 군·구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2억7천만 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22년 행정안전부 주관 국정 시책 정부합동평가 실적 및 2023년 기관 사업수행 노력도를 합산하여 10개 군·구를 평가했다.

미추홀구는 이번 평가를 대비해

보고회 개최, 외부 전문 감사 컨설팅, 자체 교육, 국정시책 우수사례 제안 공모 등 적극적인 준비를 했다.

이영훈 구청장은 “우리 구가 인천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모든 공직자가 소통과 협업으로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라며, “주민들이 살기 좋은 미추홀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형남 기자 / jonghapnews.com

◆서구

2023년 인천서구 동 평생학습센터 시범 운영 사업 성료

인천 서구는 서구 평생학습관의 지역 평생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생활 밀착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간 평생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근거리 평생교육사업인 ‘2023년 동 평생학습센터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동 평생학습센터 시범운영 사업에서는 23개동 주민자치센터와 도시재생센터를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청라3동 주민자치센터’와 ‘가좌3동 건지골상상+365센터’가 지정됐다.

가좌3동 건지골상상+365센터에서는 지역 리더 양성을 위한 맛보기 프로그램인 ‘다함께 놀자’로 ‘아이 1명을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를 모토로 했으며, 마을 어른들이 함께 사는 아이들을 직접 돌볼 필요가 있다고 느낀 주민들이 참여했다.

장영아 감사(놀이하는 사람들)의

진행으로 전래놀이에 대한 이해와 실패하기, 까막잡기, 고누놀이 등의 실내놀이를 병행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자는 “어릴 적 놀았던 그 놀이가 가물가물 생각이 나고 혼자서 아닌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라서 즐거웠다. 어릴 때 그 놀이를 하다 보니 젊어진 것 같고 가좌3동에서 놀이학교를 만들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고 전했다.

서구 평생 학습관 관계자는 “2024년에는 올해 시범 운영에 참여한 2곳을 포함해 동 평생학습센터를 10개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서구의 모든 동에서 주민들이 근거리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도록 관내 평생학습기관의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 평생학습관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형남 기자 / jonghapnews.com

◆옹진군

백령도 어르신들의 서울 날들이

(주)백령여행사(대표 최대정)는 올해도 어김없이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모시는 여행을 통해 지역 업체의 사회 환원을 통한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했다. 이번 행사는 매년 백령 어르신들의 제주도 무료여행을 진행했던 과거와는 달리, 서울 나들이를 원하는 신청자들의 요청으로 지난 15일과 16일, 1박2일의 일정으로 청와대, 경복궁, 서대문형무소, 아쿠아플라넷 등 서울의 주요 관광지와 랜드마크를 탐방하는 일정으로, 어르신 30명이 참가했다.

백령여행사 외에도 뜻을 함께한

피아어전기건설, 제이디건설, 제일건설개발, 이팔중기 등 현지 업체가 후원에 참여했고, 미용실 프랜차이즈 리안헤어 본사에서는 후원금과 자사 제품을 기부했다.

최대정 대표는 “효녀 심청이 설화의 섬, 효의 고장 백령도에서 지역 후원업체들과 뜻깊은 행사를 매년 진행할 수 있어 행복하다”며, “웃어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점점 쇠퇴되어가는 현 시대의 효 문화를 되살리고, 사업의 이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이웃사랑을 계속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윤선 기자 / jonghapnews.com

2022년 1월 27일 일터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 50억원 이상 공사) 기업·기관·단체 → 2022년 1월 27일부터 적용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건설업 50억원 미만 공사) 기업·기관·단체 →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

일하는 사람의 생명·건강 보호는 경영자의 기본 의무입니다.

- 기업·기관·단체의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중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을 이행해야 합니다.
 - ①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 ② 중사자 참여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제거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 ③ 이를 이행하기 위한 조직·인력·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 또한 재해가 발생하면 재발방지대책을 반드시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www.koshasafety.co.kr) 참고
 - 중대재해처벌법령·해설서·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업종별 자율점검표·강의동영상
 - 재정지원·컨설팅 사업 안내